Easy Trips

Reportagem da Lonely Planet Magazine Korea, sobre atrativos turísticos de São Paulo.

활기찬 아베니다 파울리스타를 거닐거나
이비라푸에라 공원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상파울루.

PHOTOGRAPHS : CAIO PIMENTA/SPTURIS

São Paulo, Brazil 브라질 상파울루
파울리스타누 스타일

왜 지금 가야 할까?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 '상파울루'가 머릿속을 막 스치겠지만 시드니가 호주의 수도가 아니듯 상파울루도 오답이다.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1960년 브라질리아가 수도가 되었다. 그렇다 해도 남미 최대 도시는 역시 상파울루다. 브라질 파울리스타누(Paulistano, 상파울루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아베니다 파울리스타(Avenida Paulista)로 향하자. 왕복 8차선의 대로를 사이에 두고 회색 빌딩이 각축전을 벌이고, 그 아래 타투로 한껏 멋을 낸 현지인이 느리게 활보하는 상파울루의 중심지. 대로 한복판에 비집고 들어선 성냥갑 모양의 상파울루 미술관(MASP)은 렘브란트, 고흐, 피카소 등 1,00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소장한다. 미술관 아래 광장은 토요일이면 각양각색의 골동품을 모아놓은 벼룩시장으로 변신한다. 상파울루 최대의 녹지 이비라푸에라(Ibirapuera) 공원에선 자전거를 빌려 울창한 수풀 사이를 누벼볼 수 있다. 주말이면 이 공원 잔디 광장은 웃옷을 벗어 던지고 누워 수준 높은 브라질 뮤지션의 야외 공연을 즐기는 젊은이로 가득 찬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인천국제공항에서 상파울루국제공항까지 대한항공(255만 원부터, kr.koreanair.com)이 직항편을 운항하고, 에티하드항공(137만 원, etihad.com/kr)이 아부다비 경유 항공편을 7월부터 신규 운항한다.

★ 교통난이 극심한 상파울루는 최근 도시의 주요 거리에 자전거길을 새로 내는 시클로 파이샤(Cido Faixa)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공원마다 자전거 대여 시설을 확충했다.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상파울루 내 자전거 루트와 주요 명소를 안내한다. cidadedesaopaulo.com/ciclofaixa

★ 전직 건축가인 두 친구가 만나 상파울루에 힙한 호스텔을 만들었다. 위 호스텔(We Hostel)은 편안함, 스타일, 안전, 즐거움을 모토로 공간을 완성했다. 메인 컬러인 화이트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따뜻한 느낌의 가구를 배치해 심플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을 완성했다. 소품 하나하나 감각이 넘친다. 프라이빗 트윈 룸(욕실 공동) 75헤알부터, wehostel.com.br